

‘선두 수성’ KIA, 서울 6연전서 ‘독주 체제’ 굳힐까

23~25일 키움전·26~28일 LG전

지난주 3승 3패... 단독 선두 ‘굳건’ 김도영 2주 연속 화끈한 타격 과시 타선서 최다 11홈런 생산하며 맹폭 대체 선발 김건국 컨디션은 아쉬움



지난주 SSG랜더스와 NC다이노스를 상대로 3승 3패, 안타작에 그친 KIA타이거즈가

이번주 서울 원정 6연전에서 우세한 성적을 거두며 선두 독주 체제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KIA는 23일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이어로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원정 주중 3연전을 치른 뒤 26일부터는 잠실야구장으로 옮겨 LG트윈스와 원정 주말 3연전을 갖는다.

KIA는 승패 마진 ‘0’으로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17승 7패(승률 0.708)로 단독 선두를 굳건히 지켰다. 2위 NC와 2경기, 3·4위 키움·SSG와 3.5경기, 공동 5위 LG·삼성과 4경기 차 선두다.

야수진의 파괴력은 돋보였다. 지난주 여섯 경기에서 팀 타율이 0.260에 그쳤지만 홈런 11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대포를 쏘아 올렸고, 팀 OPS(출루율+장타율)는 0.816으로 롯데(0.8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김도영이 4홈런 3도루를 포함 주간 타율 0.450(20타수 9안타)에 9타점 11득점을 생산하며 2주 연속 물오른 타격

2024 KBO리그 순위 (22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24	17	7	0	0.708	-
2	NC	24	15	9	0	0.625	2
3	키움	23	13	10	0	0.565	3.5
4	SSG	26	14	11	1	0.560	3.5
5	LG	26	13	11	2	0.542	4
	삼성	25	13	11	1	0.542	4
7	한화	24	11	13	0	0.458	6
8	두산	26	11	15	0	0.423	7
9	롯데	24	7	16	1	0.304	9.5
10	KT	26	7	18	1	0.280	10.5

감을 과시했다. 지난주 맹타로 김도영은 시즌 타율을 0.316로 끌어올렸다.

대체 선발과 추격조는 아쉬운 투구를 보였다. 이의리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이탈하며 두 차례 대체 선발을 책임진 김건국은 16일 SSG전에서 3.1이닝 3실점, 21일 NC전에서 2.1이닝 4실점에 그쳤다. 김사윤(3경기 4.1이닝 4실점)과 김현수(3경기 3.2이닝 3실점) 등 추격조도 제구 불안을 겪으며 고전했다.

●키움, 지난주 팀 타율 0.244 최악

키움은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에도 9개 구단과 첫 바퀴를 3위로 마무리했다. 지난주 KT와 두산에 모두 1승 2패로 연속 루징 시리즈를 안았음에도 순위를 지켰지만 선두 KIA와 격차는 3.5경기로 벌어진 상황이다.

KIA는 키움을 상대로 월 크로우-윤영철-양현종을 선발로 낸다. 크로우는 많은 이닝을 소화해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근 세 차례 선발 등판에서 모두 무자책점



KIA타이거즈가 23일부터 키움이어로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원정 주중 3연전, 26일부터 LG트윈스와 원정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2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 시즌 2차전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으로 승리를 챙기며 기세를 올렸다. 윤영철은 18일 SSG전에서 6이닝 5실점으로 주춤했고, 양현종은 19일 NC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에 성공했다.

키움은 하영민과 헤이스, 김선기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다. 하영민은 17일 KT전에서 4.1이닝 4실점으로 올해 무패 기록이 깨졌고, 헤이스는 18일 KT전에서 5이닝 3실점에도 패전의 불운을 안았다. 김선기는 19일 두산전에서 3이닝 4실점(3자책점)을 기록하고 조기 강판된 바 있다.

키움은 지난주 팀 타율이 0.244로 한화(0.239)와 함께 최악의 흐름을 보였다.

송성문(주간 타율 0.444)과 김휘집(0.348), 이용규(0.304)가 분전했지만 흐름을 뒤집기엔 부족했다.

●LG, 선발 로테이션 변동 가능

디펜딩 챔피언 LG는 9개 구단과 첫 바퀴를 공동 5위로 마무리했다. 지난주 롯데에 2승 1패, SSG에 2승 1무로 연속 위닝 시리즈를 쟁했다. 공동 5위로 순위는 그대로지만 선두 KIA와 격차를 5.5경기에서 4경기로 줄였다.

KIA는 LG를 상대로 제임스 네일에 이어 대체 선발과 크로우를 가동한다. 이의리가 아직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체 선발과 크로우를 가동한다. 이의리가 아직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체 선발과 크로우를 가동한다.

난도장을 찍지 못했다. 퓨처스에도 유용자원이 유승철과 유지성, 황동하 정도다. 반면 LG는 선발 로테이션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일 SSG전 우천 취소 여파로 21일 더블헤더를 치르며 엔스와 손주영이 같은 날 선발 등판을 소화했고, 로테이션 상으로는 손주영-엔스-임찬규 순서지만 엔스-손주영-임찬규 순서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LG 타선에서는 문보경과 박동원의 활약이 눈에 띈다. 문보경은 지난주 타율 0.429(21타수 9안타)로 6타점 6득점을 생산했고, 박동원은 타율 0.421(19타수 8안타)로 3타점 1득점을 뽑았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체고 문건영, 종별체조선수권 5관왕

개인종합·마루·안마·도마·평행봉

‘체조 국가대표’ 문건영(광주체고 3·사진)이 제79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5관왕에 올랐다.

문건영은 지난 19~21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에서 금메달 5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문건영은 기계체조 마루(1위), 안마(1위), 링(2위), 도마(1위), 평행봉(1위), 철봉(2위) 등 6개 종목 예선 점수를 합산한 개인종합에서 81.100점을 획득하며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건영은 종목별 결승에서 마루(14.700점)와 안마(13.567점), 도마(14.433점), 평행봉(13.933점) 등 4개 종목에서 1위에 오르며 5관왕을 달성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 국대 1차 선발전 5관왕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이 올해 첫 출전한 제2회 페퍼저축은행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겸 2025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따내며 5관왕을 차지했다.

윤태성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경기장 아시아드양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50m, 50m 종합, 개인전, 더블종목과 같은 팀 정진영과 팀을 이룬 혼성단체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25 장애인양궁 국가대표는 1~4차 선



링 결승에서는 12.300점을 기록, 동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김승아(3년)는 여고부 도마 종목 결선에서 11.900을 기록, 구보인(대구체고·12.325점)과 박나영(경기체고·12.100점)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중 유운서·이서영(이상 3년)·송채연(2년)·박유빈·신유나(이상 1년)는 대회 여중부 단체종합에서 4개 종목 총점 129.900점을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대회 단체 종합 3위 이후 8년 만의 단체전 입상 쾌거다.

송채연은 여중부 도마 결선에서 10.925점을 기록, 은메달을 추가했다.

최동한 기자

로이드 해리스, 광주오픈 테니스 단식 정상 올랐다

결승서 부 윤차오케테에 2-1 승복식서는 이재문·송민규 우승

로이드 해리스(Lloyd Harris·남아프리카공화국·ATP 단식 랭킹 171위)가 ATP(프로테니스협회) 광주오픈 챌린저 2024에서 단식 정상에 오르며 올해 대회 피날레를 장식했다.

로이드 해리스는 지난 21일 광주 진월 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광주오픈 단식 결승에서 부 윤차오케테(Bu Yunchaokete·중국·186위)에 2시간41분32초의 혈투 끝에 2-1(6-2, 3-6, 6-4)로 승리를 챙기며 우승을 차지했다.

해리스는 14개의 서브에이스를 성공시키며 주특기인 강한 서브를 뽐냈다. 반면 윤차오케테는 5개의 서브에이스에 그치며 해리스의 서브를 되돌리는데 고전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서브에이스에서 크게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이번 대회 6번 시드인 해리스와 5번 시드인 윤차오케테의 맞대결답게 치열한 양상이 이어졌다. 1세트에서 해리스가 두 번의 브레이크를 만들어내며 6-2 압승을 거두자 2세트에서 윤차오케테가 한차례 브레이크로 6-3 승리를 챙기며 3세트로 이어졌다.

3세트에서는 해리스와 윤차오케테가 한 게임씩을 주고받으며 3-3까지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윤차오케테가 먼저 브레이크를 챙기며 4-3 리드를 잡은 뒤 해리스가 두 차례 브레이크를 포함 내리 세



로이드 해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가 지난 21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ATP 광주오픈 챌린저 2024 단식 결승에서 부 윤차오케테(중국)에 2-1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게임을 가져오며 6-4 극적인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해리스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올해 첫 챌린저 투어 정상에 오르며 ATP 단식 랭킹을 171위에서 149위까지 22단계 끌어 올렸다.

개인 통산으로는 2018년 렉싱턴오픈과 스톡턴오픈, 2019년 룬스스틴오픈에 이어 세 번째다.

해리스는 시상식에서 “함께 멋진 결승전을 만들어준 부 윤차오케테에게 감사하다. 볼 키즈와 심판, 슈퍼바이저, 관계자 등 이번 대회를 만들어 준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하다”며 “결승전에 함께해 준 팬들

덕분에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날 열린 복식 결승에서는 이재문(ATP 복식 랭킹 451위)-송민규(이상 한국산업은행·409위) 조가 지에 쿠이(Jie Cui·중국·568위)-이덕희(세종시청·1200위) 조에 2-1(1-6, 6-1, 10-3)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이재문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ATP 복식 랭킹이 451위에서 300위까지 151단계 올랐고, 송민규 역시 409위에서 283위로 126단계 올랐다. 이덕희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1200위에서 652위로 548단계 뛰어 올랐다. **글·사진·한규빈 기자**